



# 양돈농가의 부채 실태와 발생원인

## 특집

### 1. 머리말

##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양**돈산업은 정책금융지원으로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오다가 IMF관리체제의 출범으로 '80년대 초 돼지과동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육류소비가 감소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 등 농자재가 격이 상승하여 양돈농가의 가격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교역조건이 악화는 판매가격 하락보다 투입재 가격 특히 사료가격 상승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조건이 악화되면서 외부차입금에 의해 시설규모를 확대한 많은 양돈농가들이 심각한 부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격조건이 좋을 때는 외부차입금이 양돈농가의 규모확대 및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가격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히려 외부차입금이 농가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가판매가격이 생산비 수준 이하로 형성되면서 적자생산이 불가피한데 시설 투자를 위해 조달한 외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까지 겹쳐 양돈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돈농가는 고정시설을 처분할 수 없어 적자생산을 계속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에 따라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 양돈농가의 부채실태

IMF사태 이전인 '97년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축산농가의 재무구조를 보면, 부채규모는 호당 평균 약 4,000만원으로 작목별 농가로는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농업소득도 3,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업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축산농가가 1.22배로 화훼농가와 특작농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



황 의 식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1> 작목별 농가부채 및 농업소득

단위 : 천원

작목	부채규모(A)	농업소득(B)	자산(C)	비율	
				A/B	A/C
경증	13,315	15,214	181,840	0.88	0.073
축산	40,399	33,186	292,370	1.22	0.138
채소	18,162	18,465	172,985	0.98	0.105
화훼	39,460	17,327	222,391	2.28	0.177
과실	16,564	21,970	310,789	0.75	0.053
특작	33,916	21,778	194,404	1.56	0.174

자료 : 농림부, '97년 농가경제조사속보

경제잉여 면에서도 축산농가가 약 2,000만원으로 다른 작목에 비해 최소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적인 축산농가의 부채수준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축산농가의 자산규모도 29,200만원으로 과수농가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상환여력은 충분한 편이었다.

양돈산업의 사육두수는 '95년 9월에 6,490천두에서 '98년 9월에는 7,788천두로 증가한 반면 사육농가 수는 47.8천호에서 26.6천호로 감소하여 호당평균 사육두수가 136두에서 293두로 약 2.2배나 증가하였다. 100두 미만의 영세양돈농가는 감소한 반면 1,000두 이상 전업농 수는 1천호에서 2천호로 증가하여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경영규모 확대로 양돈농가의 부채규모는 축산농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양돈농가의 부채실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

지만 표본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IMF사태 직후 농림부가 농가부채 심각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돈농가의 부채규모는 개인이 평균 16,700만원이고 영농조합법인이 46,9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축종별 축산농가의 부채규모

와 비교하여 보면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돈농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돈산업이 가장 자본집약적 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농연의 농업경영인 조사도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농림부 조사와 동일하게 양돈농가의 평균 부채규모가 축산농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농연 조사의 투자규모와 부채규모를 보면 총 20호중 1억원 이상 투자농가 수가 11호이고, 1억원 이상의 부채농가 수가 12호임을 볼 때 양돈농가는 투자채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부차입금에 의존한 투자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양돈농가가 파산하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IMF사태 직후 농림부가 조사한 양돈농가의 평균 부채규모가 축산농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2〉 축산농가 부채규모

단위 : 만원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농림부 조사	개인	14,403	13,569	16,702	17,564
	법인	20,003	11,900	46,910	64,971
	평균	16,442	13,483	17,577	17,134
한농연 조사		6,515	11,956	16,109	13,057

자료 : 농림부 조사는 1억원 이상 정책자금 지원농가를 '98년 2월에 조사  
한농연 조사는 경기도 농업경영인(양돈 20호)에 대해 '98년 7월에 조사

### 3. 양돈농가 부채문제의 원인

IMF사태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하여 도시가구의 육류소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98년과 '97년 2/4분기의 소비변화를 보면 소비지출은 약 15%가 감소하였으나 육류소비는 10%로 적게 감소하였지만 육류소비 중요한 패턴인 외식의 경우는 약 26%나 감소하였다. 이는 IMF로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소비감소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돼지고기의 경우 IMF사

그 동안 양돈 산업은 규모화로 경쟁력을 가져 어느 정도 호황을 누려 왔다. 그런데 왜 양돈농가의 부채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업농 사육규모인 1,000두 농가의 경우 연간 2,200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단기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태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감소를 상쇄하고 있어 돼지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97년 동월에 비해 최소 40%(6월)에서 최대 245%(2월)나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산지가격(100kg당)은 IMF사태 직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에 회복되어 '97년 평균 174천원에서 '98년에는 177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이 어려울 경우 돼지가격이 폭락하게 되어 양돈농가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료가격(25kg당)은 환율상승으로 '97년 11월에 6,350원에서 '98년 6월에는 8,327원으로 약 30%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 돼지판매가격과 사료가격간의 교역조건 변화를 보면 '96년에서 '97년 사이에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는데 IMF이후에 크게 악화되고 있다. 농가판매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요한 요인이 사료가격 인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가격 상승률 30%만 고려하여도 양돈농가의 농업소득은 약 60%가 감소하게 된다. 사료회사 분석자료의 지육 kg당 마진율을 보면 '98년 1월에

〈표3〉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 천원

	1997		1998	
	1/4	2/4	1/4	2/4
소비지출	1,531.8	1,462.6	1,374.0	1,237.4
육류	46.0	40.0	38.3	36.1
외식	146.2	162.3	116.3	120.5

자료 : 한국은행, 한국통계월보, 1998. 9



양돈농가는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규모확대를 이룩하여 전업농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크게 증대하였다. 양돈농가의 이와 같은 재무구조하에서 갑자기 IMF사태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부채문제가 양돈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 8월까지 평균 판매가격은 2,574원인 반면 비용은 2,669원으로 마진율이 -3.5%가 되어 95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를 연간 비육회수 2.3회를 고려하여 환산하면 두당 약 22천원의 손실을 보고, 전업농 기준인 1,000두 사육농가는 연간 2,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IMF사태 이후 '98년의 양돈농가의 경영상태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양돈산업은 규모화로 경쟁력을 가져 어느 정도 호황을 누려 왔다. 그런데 왜 양돈농가의 부채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업농 사육규모

인 1,000두 농가의 경우 연간 2,200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단기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례조사의 경우 중장기 정책자금 원금 상환액이 호당 평균 약 1,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돈농가는 비용증가로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양돈농가가 과거의 이익을 자산운영차원에서 부동산 형태로 저축하고 있는 경우 IMF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재의 경영악화에 대해 부채대책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원인이다.

#### 4. 결론

양돈농가는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규모확대를 이룩하여 전업농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크게 증대하였다. 양돈농가의 이와 같은 재무구조하에서 갑자기 IMF사태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부채문제가 양돈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돈농가가 대처하기 어려운 외부 여건의 단기적인 급락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돈농가도 부채규모 축소와 유동성 제고라는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養豚**

〈표4〉 양돈농가 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990=100)

	'96	'97	'98.1	'98.3	'98.6
돼지가격(A)	102.3	121.1	122.8	147.9	124.7
양돈용 사료(B)	105.1	111.7	149.0	149.0	144.5
A/B	0.97	1.08	0.82	0.99	0.86

자료 : 농협조사월보, 1998.8